

## 차와 도자기...축제 마당에 새봄이 왔네~

경주 신라도자기 축제-日 '라꾸 가마' 시연

경기도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청자' 세미나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시대별 다례 시범

신라도자기의 맥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5회 신라도자기축제는 3월 30-31일 경주 황성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를 주관하는 경주 도자기협회는 1995년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현재 6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신라도자기축제를 개최해 회원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도자 제작 시연, 작가와의 만남, 전통 다례 체험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라꾸(樂) 가마' 시연을 펼칠 예정이다. '라꾸'란 일본 교토의 라꾸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도예기법으로, 입자로 만든 가마에서 결과물을 빠른 시간에 얻거나 다양한 색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소성법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다완을 만드는 데 이 기법이 이용되었다. (011)516-8071

경기도 이천과 여주, 광주 일대에서는 4월 23일부터 '60일간의 도자축제'가 펼쳐진다. 3회째 맞는 2005 세계도자기비엔날레는 국내 최대의 도자기 축제로, '문화를 담은 도자'를 주제로 전시와 학술세미나, 참여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청자에 대한 전시회와 대규모 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차인들의 관심을 불러일

킨다. 청자는 차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신라시대 팔관회와 연등회 때 열린 다례행사에 청자다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청자 주전자와 찻사발 등의 작품이 전래되고 있다.

'청자의 색과 形' 전시회는 정양모 문화재위원장이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국보를 비롯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중국 고궁박물관, 미국 보스턴미술관 등에 소장된 청자유물 150여 점이 공개된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청자 찻잔을 찾아보는 것도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학술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청자문화에 대해 폭넓게 연구해 온 일본의 하세베 가쿠지씨, 중국 하남성 고고문화연구소 손신민 소장, 중국 항주시 문화보호관리소 두정원 부소장 등이 참가해 청자에 대한 최신 연구 및 발굴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주전자전'에서는 영국의 홍차 주전자 등 세계 각국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주전자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www.wocef.com](http://www.wocef.com) (031)631-6509

7월 30부터 열리는 강진청자도자기축제는 청자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강진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봄이면 파릇파릇한 차잎을 따는 손놀림만큼이나 바빠지는 것이 차인들의 행보다. 전국에서 차와 도자기를 주제로 한 축제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차심(茶心)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3월 30일 열리는 신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차와 도자기 축제의 주요 일정과 행사내용을 소개한다.



봄을 맞아 차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차와 도자기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들이 잇달아 열린다. 사진은 2003년 열린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참가한 아이들이 도자체험을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청자 문화제를 민간 주도의 '명품축제'로 꾸민다는 방침 아래, 오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gangjin.go.kr](http://www.gangjin.go.kr))를 통해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차의 주산지라 할 수 있는 경남 하동군은 지역 차 축제 일정을 두 달 여 앞두고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3월 1일 82명의 조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경남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5월

19-22일에 개최하고, 올해를 '전국 차인 하동방문의 해'로 삼기로 결의했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 '하동야생차의 비밀'을 주제로 한 주제관을 운영하고 중국다도 '용행 18식' 공연을 매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동야생차의 전설과 유래를 소재로 한 마당극과 퍼포먼스 '대림공' 등을 공연하고 다구와 다포 만들기, 차 관련 동호회와 단체 홍보의 장소 운영한다. 이 밖에 그동안 선보였던 시대별 다례시범, 야생차차 가요제, 올해의 명차 선정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055)880-211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mailto:snoopy@buddhapia.com)

### '다도구-차생활의 모든 것' 발간



차생활의 도반(道伴)이라 할 수 있는 다도구의 종류와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도구-차생활의 모든 것>이 나왔다. 차문화공예연구가 신수길씨는 다관과 다완, 찻잔을 비롯해 찻상, 다반, 찻통 등 차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다도구의 역사와 분류,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도구의 공예적 미학을 살피고 이 시대의 명인과 명장들의 작품도 함께 분석했다. 지은이는 "책을 통해 차인들이 다기류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다구들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으로써 우리나라 다구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솔과향, 3만원.

### 김운용의 '금속전' (17일까지)

무형문화재 김운용씨의 금속전이 3월 17일까지 대구 호텔인터볼로 갤러리 프라다에서 열린다. 금·은·청동 다기를 비롯해 상감입자기, 황철다기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후 2시부터는 중국차 시연도 열린다. (053)952-0088

### 녹차, 심장마비 방지 도움

英 <실험생물학연맹학회지> 발표

녹차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어린이 보건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실험생물학연맹학회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녹차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생 후 찾아오는 세포괴사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심장 세포에 대한 실험 결과 녹차의 주화합 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3-갈레이트(EGCG)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는 Stat 1이라는 단백질의 작용을 막아 세포 괴사를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EGCG가 심장세포의 회복을 촉진, 세포조직의 회복도 가능하게 해 조직 손상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에게 녹차를 마시라고 권고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고려시대 ⑥

몽골의 침략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전대에 성행했던 차문화가 계승되어 사서(寺社)에서는 물론 왕실의 행사에도 헌나 다례가 빠지지 않았다. 왕의 행차 시에 다상군이 종군해 차에 관한 일체의 시종은 물론 호위 임무까지 수행했다. 또한 차가 일상화되기는 했으나 좋은 차는 귀해, 선비와 승려들 간의 교류에 고급차가 많이 오갔다.

### 왕 행차시 다상군 수행, 관료들 음다기풍 왕성

중국 송의 패망과 원의 건국으로 차에 관한 제도와 관장 기구 및 직책을 새로이 정비해 여러 곳에 전운사(轉運使)를 두고 관리했다. 일본도 대화차가 명성을 얻어 애용되고 다서도 여럿 간행된다.

① 이제현(1287-1367): 문인으로 사선(四仙) 일화가 전하는 묘연사 석지조에 차를 끓여 마셨고 승광 화상에 게 보낸 다시가 유명하다.

안축(1287-1348): 문신으로 호는 근재(謹齋). 한송정 다현(茶軒)이나 죽장사를 노래한 시가 <근재집>에 전한다.

박충차(1287-1349): 문인이 차인으로 그가 지은 다시가 전한다.

② 이곡(1298-1351): 강릉객사에서 읊은 시와 한송정을 다려와서 쓴 동유기(東遊記)가 있다.

③ 백운대사(1299-1374): 신광사와 홍성사에 주석한 다사이다. '직지심경' 등 다시가 전한다.

④ 원은 정기스칸이 건설한 몽골제국으로, 중국의 차문화가 러시아나 지중해 연안까지 퍼져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송대의 고아한 다풍이 변질되기도 했다.

⑤ 초기에는 송의 세다제도를 답습했으나 나중에는 각다제를 채택했다.

⑥ 양양지: 정부가 다세를 낸 사람에게 차의 판매권을 주는 허가증으로 다인(茶引)과 다유(茶由)가 있었다. 다유는 좀 더 소규모 다상에게 주는 것으로 5년여에 걸쳐 시행됐다.

⑦ 양유정: <음선정요>에서 자선, 작실, 온상차 등의 산지와 특징, 효과 등을 비롯해 청차, 초차, 향차 등을 꼽는 법을 설명했다.

⑧ 대화차는 이 시대 최고의 차로 막부에 보내졌는데, 그 단위가 석(石)과 말(斗)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엽차(葉茶)일 가능성이 높다.

⑨ <객다원래>는 현해법사가 쓴 책으로 이 때의 일본차는 모미(도가노오)가 으뜸이고 천경(시즈미)은 말류라고 했다.

시대별 연표	⑥ 표는 약(abou)		
	한국	중국	일본
고려시대	1270 삼별초의 항거 1274 몽고군과 일본정벌 1276 통문관(通文館)을 둠 1279 연등도감을 설치 1281 금자대장경사경소(金字大藏經寫經所) 설치 1283 일연선사를 국조으로 함	1271 원(元)의 건국 ④ 차의 자유매매 허용 ⑤ 1276 양양지(兩兩制) ⑥ 1277 강희각다도전문사 설치 1279 남송의 멸망 1280 각다도전문사	@ 대화차(大和茶)가 국성 ⑧ 1279 수지다상(守治茶商) @ <객다원래> (현해법사) ⑨
원대	1287 이제현, 안축, 박충차의 출생 ① 1290 왕의 행차에 다방군이 종군 1292 홍공사의 죽음에 향과 차를 보내다	1288 양회도전문사 설치 강서각다도전문사 설치	가마쿠라 시대
	1298 이곡의 출생 ② 1299 백운대사 ③	1294 철목야(鐵木野)의 죽위 1296 양유정 ⑦	

# 불기 2549년 봉축 현수막

불법복제판매 불허

※ 각 지역 사명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90cm x 60cm, 7m, 8m, 10m, 12m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기아철(정암)연수막

초파일 연등정수합니다  
초파일 연등 정수합니다

화재경려 없는  
T형 일체식 캐이블  
※ 실용신안등록 제품!

◆ 티셔츠 (100매이상 사할명 인쇄)

봉촉스님 평화 작품

◆ 봉촉 캐릭터 문선

(바람날는 손편지도 있습니다)

◆ 봉촉 타이틀링

◆ 앞치마  
색상: 군청, 주황, 연두, 노랑, 분홍, 빨강, 녹색

◆ 봉촉 장엄 번 계등행렬용

◆ 연꽃타올 (100매이상 사할명 인쇄)

◆ 연꽃수건  
색상: 주황, 진녹, 분색

◆ 경사조홍(5가지 1세트)

◆ 봉촉 리본  
일반 고급 3단귀빈용

◆ 봉촉 캐릭터 등  
색상: 적색, 분홍, 녹색, 노랑, 청색

◆ 불자의 집 교배

지량용 올마니반매음

◆ 오신불 열쇠고리 (200개이상 사할명 인쇄)

◆ 왕금목탁 엔드폰줄 (24K 도금) 신제품

◆ 봉촉 버튼

◆ 자외선차단 편백  
색상: 빨강, 청색

◆ 성인모자  
색상: 빨강, 청색, 회색

◆ 아동모자  
색상: 빨강, 노랑, 청색

감로기혁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www.gamro.net](http://www.gamro.net) | E-메일: [gamro4306@hanmail.net](mailto:gamro4306@hanmail.net)